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우리는 과거의 일상(normal)을 잃어 버렸고,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분명 한 것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뉴노멀'이 일종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상황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분야 혹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문제라는 점에서 총체적 대변동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삶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사람들이 나아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추억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져서 지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삶을 바꾼 '신도

뉴노멀 사회와 수축사회

시'와 '아파트'를 생각해 보자.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몇 년 후 그 자리에는 뉴타운이나 신도시가 들어서곤 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게 우리의 삶과 사회는 바뀌어 왔다. 그럼에도 지금의 대변동이 전혀 다른 충격을 던지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김홍기 교수는 이종재 뉴노멀의 미래를 전망했는데, 경제 영역의 불확실성과 국가의 귀환, '제3의 자리'로 이동하는 사회였다. (국민) 국가와 경제의 변화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회에서 '제3의 자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개인적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러한 흐름이 합치하는바는, 코로나 광풍이 그치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옛날의 자리가 아닌 제3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제3의 자리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이 강화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욱 중첩되는 공간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거나 중첩되는 공간으로서 제3의 자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세계 사이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국가와 경제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이번 사태로 분명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지만, 여전히 세계화와 지역화는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기적으로 국가의 귀환은 당연히 보이지만 국가의 역할과 기능, 시민의 역할과 정체성의 문제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2018년 말 출간된 '수축사회'(홍성국 지음, 메디치)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보여 준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 '낯선 세계의 문턱에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는 '팽창사회'였다면,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수축사회'로 진입하면서 제로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축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기주의, 모든 분야에서의 투쟁, 현재에만 집중하는 태도, 팽창사회를 지향하는 집중화, 심리적 문제 등등. 수축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자는 '인류 모두가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타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이다.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회는 달라진다. 따라서 경제적 자본 이전에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팽창사회에서 불갑고 있던 효율성과 합리성이 아닌 도덕과 윤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낯선 세계의 문턱'에서 있다. 결국 각자의 삶을 살피야 한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삶이라는 일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은 혼자자 아닌 여럿이 함께 해야 하는 물음이다. 개인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으로 바뀔 때 출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순서를 잊지 말자. 시장과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다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 "나는 어두운 인간 세상의 그림자를 스르름없이 당신 머리 위로 던져 주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두운 것을 뚫어쳐라 쳐다보고, 그 안에서 당신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끄집어내십시오."(나쓰메 소세키, '마음' 중)

종교칼럼

‘오래 참음’(Patience)



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여곡절 인생 속에 진주와 같은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편리하고, 쉽고, 즐겁고, 빠름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며 발달된 문명과 함께 이런 성취를 만족하며 행복해 했다. 반면 어렵고, 귀찮고, 힘들고, 지루한 과정을 피해 쉽게 성공하는 방법과 효율을 치열하게 모색해 왔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자유스럽고 효율적이었던 모든 생활의 방식과 패턴이 뒤흠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이 환경의 끝을 향하여 모든 세상이 몸부림을 친다. 그렇다며 우리 인생에 진주 같은 열매를 맺는 방법과 같은 비결이 있는가? 있다. 그것은 '오래 참음'(Patience)이

다. 언제가 필자는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었다.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마르고 땅이 메말라 먹을 물이 없을 때 필자가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장담했다.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 방법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면 그렇지 했겠지만 '인내심'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다. 많은 성공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 즉 그들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이다. 로마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 시대 평범한 신자들은 몹소 친절하게 행동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실천함으로써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그들은 자기의 원수를 사랑했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용서 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굶주린 자를 먹였다. 잔혹한 로마의 치세 아래 살면서 도,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색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 이들 평범한 신자

들이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어 어떤 처지에서든 오래 참는 삶의 모범을 보여 공공중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의 색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로마 제국은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4세기 때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율리anus 황제(AD 331~363)는 그들이 제국을 장악할까봐 두려워했다고 한다. 인내의 최고의 정점은 한계점이다. 언제나 우리는 한계점에서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승부는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 한계점에 이르면 우리 속에서 항상 내면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기 싫고 귀찮다, 무섭고 두려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속삭이며 오래 참음을 포기하려고 종용한다.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 보듯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다. 오래 참음은 이런 감정과 충돌하는 관계를 이겨내는 속성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을 '옴'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23:10) 잘 살던 옴이 갑자

기 망해 버린다. 가족도 건강도 친구도 돈도 한 순간 모두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옴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한다. 옴은 순간의 원망과 분노로 인내의 다리를 폭파시키지 않는다. 술이나 게임, 마약 등 중독의 도구로 힘든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가는 인생의 원리'를 고뇌하며 생각하여 마치 막 오래 참음의 고비를 지켜낸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은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즉 지능과 관련성이 깊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인내하는 아이들의 뇌가 더 창의적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결과가 있었듯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오래 참아 목표 지점까지 생각의 노를 저어 가본 반드시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일상에서 얻게 될 것이다.

기 고

광주시립 의료원 설립에 부쳐



박형철
예방의학 전문의·전 국립소록도병원장

감염병, 코로나(COVID-19)가 전 세계를 잔뜩 움츠리게 하고 있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코로나뿐일까? 아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 운동, 균형 영양이 시민 건강을 좌우하는 이슈다. 고혈압, 당뇨병, 대사성 증후군, 암 등 만성 질환군도 있다. 코로나 감염자에 만성 질환이라는 기저 질환 동반 여부가 예후를 좌우는 주요인이다. 상당수가 가벼운 감기 같은 이 질환에 만성 질환이 보태지면 치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흡연자를 코로나 구위험군에 분류해 대치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따로'가 아닌 '함께'의 문제이다. 광주시립 의료원(가칭) 설립이 코로나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시민 사회의 오랜 외침에 묵묵부답이던 지방자치단체가 만사지탄이나 응답한 것이지만 전적으로 공감하고 청랑감마저 느낀다. 아

픈 경험이 공공 의료 부문 발전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반기운 마음이 들면서도 진정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 기관 위상에 맞는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사스 방역을 훌륭히 해낸 노무현 대통령이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어 오늘의 엄중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여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반면, 자만에 빠져 공공 의료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축소에 나섰던 유럽은 이번 사태 처리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의료원 설립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수익을 위해서는 병원보다 장례식장을 만들어야 하고 매점이나 고급 프랜차이즈 카페나 레스토랑을 유지해야 한다. 각종 검사나 시술로 시민들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의료진도 돈 버는 형장에 내몰릴 것이고 감염병 감시 등 공공 보건 사업은 뒷전일 것이다. 민간 병원과 뭐가 다를까? 공공 의료는 공공재(公共財)이고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금남로에서 수익을 바라거나 통행세를 받지 않는 이유와 궤를 같이 한다. 시민의 건강을 이용해 수입을 올리려한다는 오해받지 말기 바란다. 따라서 광역시가 보건 의료에 우선 투

자하는 데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정부의 기능을 약화하려는 신자유주의로부터 공공 보건 기능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 사회의 이해와 동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 2의 진주의료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 주민과 건강을 가꾸으면서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지방 공공 의료 기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짐을 목격하였다. 설립될 광주시립 의료원은 어느 지방 정부가 들어서도 소멸되지 않고 시민 건강을 묵묵히 지켜 내며 공공 보건의료 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급하면 체하는 법. 의료원 설립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열심히 추진하되 시설이 병원이라는 건물이 아닌 거기에 담아 시민들의 건강 육구와 이를 해결할 시스템이나 솔루션 등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기억해야 한다. 건강이 없이는 사회 발전도, 경제 발전도 없다는 사실을, 사태가 진정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등 정치적 어젠다에 물고기를 돌리면 자연은 냉정하게 망각에 대한 대가를 되갚아 준다는 사실을, 시민들도 광주시의 행정 역량이 거기에 집중되도록 추동하고 코로나 이후 광주시정을 감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新) 지역 보건 의료 체계가 구축되길 원한다. 공공 의료원 설립도 그 중 하나다. 이는 민간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광주에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감염병은 물론 만성 질환, 시민 건강 증진이나 건강 보호 등을 담보할 비전과 건강 가치, 패러다임을 공공 보건학의 바탕 하에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다. 건축이나 기술이 전부여서는 안된다. 민간과 경쟁이나 중첩이 되어서는 안된다. 수익을 추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바람직한 가치 사슬(value chain) 바탕으로 시민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즈음 정치적 선언(Political Commitment)과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 건강이 시정의 모든 부문보다 최우선한다는 시장의 의지가 담긴 '광주시 건강 선언'(가칭)이 필요하다. 논의 과정은 당국이 주도해서 안 된다. 공공 보건 전문가 중심으로 대학(병원), 의료인, 시민, NGO 등의 역할이 주어져야 하고 당국은 집행할 틈을 지원군이여야 한다. 산고 끝에 첫 발을 댄 의료원 설립 논의가 단순한 기관 설립이 아닌 '광주시 공공 보건 체계 구축'으로 확대되고 심화될 길기대한다. 광주시민의 건강을 지켜낼 운동자 탄생을 기원한다.

社說

상임위 전략적 배치로 호남 정치력 강화를

4·15 총선이 끝나면서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6월에 개원하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어떤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정될지가 관심사다. 상임위 배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자들을 상대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일부 인기 상임위에만 몰린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지역 당선자 8명 가운데 3명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명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했다. 전남 지역 당선자의 희망 상임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0명 중 6명) 한 곳에 몰려 있다. 이는 광주의 전략 분야 산업이 광산업과 인공지능 분야이며 전남의 주력 산업은 농림축산수산 분야라는 점에서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렇지만 광주의 경우 아

시야문화전당과 광주형일자리 등 핵심 현안 사업을 안착시켜야 할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지원한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상임위 구성에 있어 전략적 선택과 배치가 긴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정치력을 한데 모아 구심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가운데 13명이 초선인 만큼 구심점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상임위 구성이 끝난 후인 7-8월경에는 광주시·전남도당 지역 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 벌써부터 지역 위원장 선거가 3파전이 예상되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처럼 지역 정치권을 조율할 구심점이 없는 탓이 크다. 상임위 구성과 지역 위원장 선출은 호남 정치력 강화 가능성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선자들은 소통과 화합으로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

물동량 감소 광양항 위기 보고만 있을 건가

전남 광양항을 이용하는 주요 선사 2곳의 항로가 바뀌면서 광양항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사인 SM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인 '2M 얼라이언스'에 신규 가입했으며 현대상선도 '디얼라이언스'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선사의 항로도 일부 변경돼 광양항 물동량이 연간 20만TEU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구체적으로 보면 SM상선의 경우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 22만5885TEU 가운데 10만TEU가량이 내수출입 전반기 기준 24만4052TEU 가운데 10만TEU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광양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237만TEU인데 선사 2곳의 물동량이 빠져나가면서 전체 물량의 8.4%가량이 감소하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

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의 여파로 물동량이 격감하고 있는 판에 국내외 화물까지 이탈하는 등 앞전 데 닦진 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물동량 위기가 장기화하면 광양항은 국내외 화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결국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데 있다. 당장 우리 수출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광양항을 고부라까지 물류복합항만으로 조성하려는 정부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정책의 효과는 타이밍이 결정하는 바 지금은 여기에 더해 속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광양항의 정보유을 좌시하지 않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대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역시 광양항 물동량 감소의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 시내(市內)라는 단어가 있다. 중장년층은 주로 중장로·금남로 일대를 일컬을 때 사용하며 20·30대는 여기에 구시정 사거리 일대까지를 포함한다. 시내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의 안'이다. 광주가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중장로 일대가 유일한 도심이었다. 하지만 인구가 늘고 권역이 커지면서 광주는 중장로권을 중심으로 한 '도도심'과 상부·첨단·수완 지구 등의 '신도심'으로 나뉘었다. 그럼에도 중장로 권역은 광주 근현대 역사·문화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내'에 속한다. 도시의 세월이 따라 변하지만 구도심에든 신도심에든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 빌딩 끝자락이나 도로변 보도 현편을 차지한 두어 평 남짓의 가건물인 '구도방'이 그런 곳이다. 이곳엔 20·30년 전만 해도 두세 명의 구두 수선공이 있었다. 이들은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나름 전문직에 속했다. 구두 수선공 일화로는 미국 대통령 링컨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유명하다. 이들은 구두 수선공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링컨은 아

비지를 가장 존경했으며, 스탈린은 아버지에서부터 학대당하며 컸다는 차이가 있다. 성장 과정 탓인지 링컨은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에 비해 스탈린은 숙청이란 미명하에 2천만 명의 소련인들을 죽인 '희대의 학살자'로 평가된다.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된 뒤 상원에서 취임 연설을 하려 할 때 만의 의원이 자기 신발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당신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이 같은 공개적인 조롱에 링컨이 응수한다. "아버지는 많은 귀족의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기술을 보고 배웠기에 손바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위대했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장성 출신으로 서울에서 30년 동안 구두 수선공으로 일해 번 돈 12억 원을 전남대에 기부한 80대 할아버지의 얘기가 최근 화제가 됐다.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이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 준다. 거액의 기부에 두말하지 않고 찬성해 준 그 가족들도 참으로 존경스럽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

구두 수선공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